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0. No. 7, pp. 108-115, 2020
e-ISSN 2586-444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20.10.07.108

중년성인의 주관적 사회계층과 자살생각에 대한 융합연구: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 효과

고영[1], 김지연[2*]
[1]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경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A Converged Study on the Influence of Subjective Social Class on Suicide Ideation of Middle Aged Adults: Doubl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Young Ko[1], Ji-Youn Kim[2*]
[1]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achon University
[2]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do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45~64세) 남녀를 대상으로 주관적 사회계층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이중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대상자의 주관적 사회계층이 자살생각에 영향에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렬 이중 매개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성별, 연령, 동거인 여부와 우울을 보정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주관적 사회계층은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β =0.23, p<.001)와 자아존중감(β =0.12, p <.001)에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0.21, p<.001).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에 주관적 사회계층(β =-0.25, p<.001), 사회적 지지(β =-0.32, p<.001)와 자아존중감(β =-0.19, p=.001)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주관적 사회계층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주관적 계층이 사회적 지지 그리고 자아존중감을 거쳐 자살생각에 이르는 다중 간접효과 모두 유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중년성인을 대상으로 생활터 기반의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중년성인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기여하여, 자살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제어 : 중년, 자살,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주관적 사회계층,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ouble mediating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ive social class and the suicide thoughts of middle aged men and women. The subjective social class was analyzed in a parallel double-mediated model to check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the idea of suicide. Social support and self-respect, which are mediating variables of subjective social class on suicide idea, both wer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ut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together,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living-based social support system for middle-aged adults. This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self-esteem among middle-aged adults.

Key Words : The meddle aged, Suicide, Self-esteem, Social support, Subjective social class, Convergence

*Corresponding Author : Ji-Youn Kim(iscraa08@kduniv.ac.kr)
Received May 6, 2020
Revised June 30, 2020
Accepted July 20, 2020
Published July 28,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회경제적 요인을 측정하는 지표는 수입, 교육수준, 직업 수준으로 다양하며 이는 모두 건강상태와 사망률과 관련이 있다[1-2].

일부 연구자들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대한 인식적 요소도 건강상태의 격차(gradient)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 개인의 수입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절대적인 소득수준 기준보다는 상대적, 불평등의 관점이 중요하다[3]. 이런 측면에서 주관적 사회계층은 자신의 현재 소득수준, 교육수준, 그리고 직업적 측면과 미래의 전망을 반영하는 통합적 지표로 현재 공식적인 소득이 없거나 직업이 없더라도 자신의 계층을 평가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자산과 소비, 이웃 환경 등의 모든 요인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갖는다[4]. 주관적 사회계층은 사회경제적 상태를 기반하여 개인이 스스로가 자신과 유사한 계층에 속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는 문화적 신념에 영향을 받는다[4]. 또한, 자신이 속한 사회적 계층이 공유하는 행동, 태도, 생활양식을 실천하게 되므로, 이는 건강 행동과 관련성이 크다[5]. 주관적 계층에 대한 보건학적 관심은 커지고 있으나, 실제 주관적 계층과 건강상태의 관련성을 살펴본 논문은 많지 않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평균 10만명당 11.5명에 비해 10만명 당 24.6명으로 높아 주요한 사회문제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6]. 국내 자살자 수는 50대가 2,812명(인구 10만명당 33.4명), 40대가 2,676명(인구 10만명당 31.5명) 순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절대 수가 많고, 2017년부터는 60대보다 50대의 자살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6].

61세 이상 노인에서 자살 동기가 육체적 질병 문제(41.6%), 정신적·정신과적 문제(29.4%)와는 다르게 40~60세의 자살 동기는 경제생활 문제(35%), 정신적·정신과적 문제(30%), 가정문제(9%)나 육체적 질병 문제(9%)로 나타났다[6]. 이에 중년성인에서의 자살문제는 노인과는 다르게 접근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인의 자살 관련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는 노인을 포함한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거나[7-9] 사회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개인의 심리적 측면을 파악하는 연구[10,11]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년성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계층이 어떠한 사회심리적 요인에 조절되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년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은 교육수준과 수입 등의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과 우울이었다[10-12]. 주관적 사회계층은 사회 구성원 간의 상대적 비교에 대한 개인의 인식으로, 사회적 계층에서 하위에 속한다는 것은 상위에 속하는 것에 비해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을 초래한다[13]. 국내외 연구에서도 성인의 주관적 사회계층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보고한 바 있다[8,14]. 이에 본 연구에서 중년성인의 주관적 사회계층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우울을 보정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자살 생각과 관련성을 확인한 개인의 심리적 측면은 자아존중감이었지만 일부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은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10-12]. 중년 여성에서 자아존중감은 우울로 완전매개하여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2]. 중년 남성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우울에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이나[15], 자살생각에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아니라는 연구결과[11]도 있다. 또한 자살의 보호 요인으로 확인된 사회적 지지는 일부 중년남성에서만 우울의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다[16]. 게다가 자살생각과 관련 요인들의 관계를 단면분석을 통해 영향요인을 규명하였을 뿐, 사회경제적 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보정한 상태에서 주관적 사회계층,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주관적 사회계층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주관적 사회계층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이중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주관적 사회계층에 따른 일반적 특징을 확인한다.
2) 주관적 사회계층에 따른 우울,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이 유의한 차이를 갖는지 확인한다.
3)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다.

4) 주관적 사회계층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 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년성인의 주관적 사회계층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이중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단면적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 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 실태조사로 구득한 원시 자료를 이차분석 하였다. 한국에 거주하는 만 19-84세 이하 성인 7,000명에 대해 2015년 8월 8일-9월 22일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만 45세-64세의 중년성인의 3,448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1.1 주관적 사회계층(Subjective Social Class)

주관적 사회계층은 본 설문지에서 연구자료의 문항인 주관적 계층 변수를 사용하였다. “귀하는 현재 본인이 사회적으로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5개 계층(최하위, 하위, 중위, 중상위, 최상위)으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낮은 주관적 사회계층은 최하위 또는 하위로 인식하는 경우로, 그렇지 않은 집단은 중위 또는 중상위 또는 최상위로 인식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최종모델에서는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2.1.2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연구자료의 문항인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본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인 ‘있다’, ‘없다’를 활용하였다.

2.1.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본 연구의 설문지에서 “귀하께서는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귀하는 어려움에 처한 경우 주변으로부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귀하는 평소 마음을 털어 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3문항에 대해 응답한 점수(0점:매우 적음-10점:매우 많음)를 합산한 점수로 0-3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도구의 신뢰도는 높았다 (Cronbach's α=.76).

2.1.4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제(1974)가 번안한 도구를 자아존중감의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부정 문항은 역환산을 실시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α는 .81[17],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70이었다.

2.1.4 우울

우울수준은 자가조사 도구인 단축형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11 (CES-D11)로 조사하였다[18]. 11점 만점에서 8.8점 이상을 우울증상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19]. 본 연구에서의 CES-D11의 Cronbach's α는 .85로 높았다.

2.1.5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으로 사용한 변수는 성별, 연령, 동거인여부이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주관적 사회계층이 낮다고 답한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로 구분하여 일반적 특성과 우울,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및 자살생각 정도를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이 두 그룹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정하였다. 그리고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주관적 사회계층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 SPSS/WIN 3.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병렬 이중 매개모형으로 분석

하였고, 간접효과를 추론하기 위해서 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징과 우울을 공변수로 투입하고, 독립변수에 주관적 사회계층, 종속변수에 자살생각, 매개변수에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을 입력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이분형의 결과변수를 활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PROCESS macro 모형 중 본 연구에서는 model 6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 스트래핑을 5,000번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관적 사회계층과 자살생각

전체 대상자의 연령은 45~64세이고, 남자가 49.8%(1,718명)이었고, 여성이 50.2%(1,730명)로 전체 대상자 수는 3,448명이었다. Table 1은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주관적 사회계층으로 두 그룹을 나누어 일반적 특성과 우울,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자살생각의 차이를 분석한 표이다. 주관적 사회 계층을 낮다고 인식하는 대상자는 전체 30.4% (1047명)이다. 연령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x2$=89.11, p <.001), 동거인이 없을 경우가 동거인이 있을 경우보다, 우울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을 경우 보다 주관적 사회계층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p<.001). 또한 집단의 평균보다 사회적 지지수준이 낮은 집단이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에 비해, 본 연구 집단의 평균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주관적 사회계층이 낮다고 보고하였다(p<.001).

마지막으로 주관적 사회계층이 낮은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하는 중년성인의 비율이 높았다(p<.001)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suicide ideation as subjective social class

Characteristics		Total	Low SSC	Not low SSC	$x2$	p value
Total		3,448(100.0)	1,047(30.4)	2,401(69.6)		
Gender	Male	1,718(49.8)	528(50.4)	1,190(49.6)	0.33	.567
	Female	1,730(50.2)	519(49.6)	1,211(50.4)		
Age(group)	45~49	1442(41.8)	379(36.2)	1,063(44.3)	89.11	<.001
	50's	1,382(40.1)	381(36.4)	1,001(41.7)		
	60~65	623(18.1))	287(27.4)	336(14.0)		
Living	Alone	254(7.4)	147(14.0)	107(4.5)	97.87	<.001
	Together	3,194(92.6)	901(86.0)	2,293(95.5)		
Depression	Normal	2,989(86.7)	860(82.1)	2,129(88.7)	27.58	<.001
	High(21~)	460(13.3)	188(17.9)	272(11.3)		
Subjective social support	Low(~17)	1,110(31.7)	461(41.5)	427(22.7)	95.97	<.001
	High(18~30)	2,338(68.3)	587(58.5)	1454(77.3)		
Self-esteem	Low(10~28)	1,568(45.4)	621(59.3)	947(39.4)	115.52	<.001
	High(29~40)	1,881(54.6)	427(40.7)	1,454(60.6)		
Suicidal ideation	No	3,221(93.4)	926(88.4)	2,295(95.6)	61.71	<.001
	Yes	228(6.6)	122(11.6)	106(4.4)		

Table 2. Correlations among Subjective social class,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N=3,498)

	1. Subjective social class r(p)	2. Social support r(p)	3. Self-esteem r(p)	4. Depression r(p)
1. Subjective social class	1			
2. Social support	.28(<.001)	1		
3. Self-esteem	.24(<.001)	.37(<.001)	1	
4. Depression	-.13(<.001)	-.28(<.001)	-.50(<.001)	1
M	2.78	18.82	29.75	6.69
SD	0.64	3.53	3.37	4.29
Skewness	-0.11	-0.65	-0.32	0.85
Kurtosis	0.06	0.69	0.29	0.08

3.2 주관적 사회계층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사회적 지지, 우울의 상관관계

Table 2는 주관적 사회계층과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그리고 우울의 상관관계와 이들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표이다. 주관적 사회계층은 평균 2.78(5점 척도), 자아존중감은 10~40점 사이의 값이며, 평균 29.75점이었고, 사회적 지지는 0~30점까지의 점수로 평균 18.82점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0-11점으로 평균 6.69 점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사회계층은 자아존중감(r=.24, p<.001)과 사회적 지지(r=.28, p<.001)와 양의 상관관계, 우울(r=-.50, p<.001)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지지도 양의 상관관계(r=.37, p<.001)를 나타냈다. 우울은 자아존중감(r=.13, p<.001)과 사회적 지지(r=.28, p<.001)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3.3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성별과 연령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독거가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 비해 자살생각을 2.44(1.66~3.59)배 더 많이 하였다. 우울이 높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3.37(2.49~4.61)배, 주관적 사회계층이 낮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90(1.41~2.56)배, 주관적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85(1.39~2.49)배 높았으며,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12(1.52~2.95)배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3.4 주관적 사회계층과 자살생각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다중매개효과

주관적 사회계층과 자살생각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0.68-0.96로 0.1 이상이며, 분산팽창지수는 1.04-1.46로 10보다 크지 않았다. 또한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가 0.28-.37로 0.8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없었다.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한 번에 검증할 수 있는 Process macro V.3.3을 이용하여 병렬 다중매개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주관적 사회계층은 주요한 독립변수로서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β=.23, p<.001)과 자아존중감(β=.12, p <.001)에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는 다른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β=.21,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에 독립변수인 주관적 사회계층(β=-.25, p<.001),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β=-.32, p<.001)과 자아존중감(β=-.19, p<.001)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Table 3. Factors Influencing on the suicide ideation

Characteristics	Variables (reference)	Model 3		
		OR	95% CI	p
Gender	Female(male)	1.05	0.79~1.39	.744
Age(group)	50's(45~49)	1.32	0.88~1.97	.184
	60~65(45~49)	1.46	0.99~2.18	.582
Living	Alone(together)	2.44	1.66~3.58	<.001
Depression	High(Normal)	3.37	2.48~4.61	<.001
Subjective social class	Low(High)	1.90	1.41~2.56	<.001
Subjective social support	Low(High)	1.85	1.38~2.49	<.001
Self-esteem	Low(High)	2.12	1.53~2.95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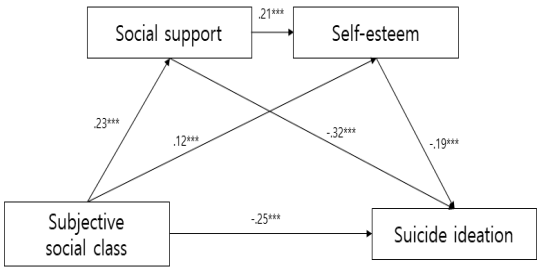
주관적 사회계층의 자살생각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Table 4와 Fig. 1과 같다. 먼저 주관적 사회계층의 자살생각에 대한 직접효과는 크기가 -0.25(95% Bootstrap CI: 0.51~0.71)으로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음의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주관적 사회계층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크기가 -0.02(95% Bootstrap CI: -0.05~-0.04)이었으며, 주관적 사회계층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크기가 -0.02(95% Bootstrap CI: 0.01~0.02)이었다. 주관적 계층이 사회적 지지 그리고 자아존중감을 거쳐 자살생각에 이르는 다중 간접효과의 크기는 0.02(95% Bootstrap CI: -0.05~-0.04)이었고 간접효과의 총합은 -0.10(95% Bootstrap CI: -0.15~-0.60)으로 유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검정한 주관적 사회계층,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는 Fig. 1과 같다.

Table 4.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Social Class and Suicide Ideation

Pathway	β	SE	t	p	95%CL
SSC →Social support	0.23	0.02	13.47	〈.001	0.17~0.25
SSC → Self-esteem	0.12	0.02	8.10	〈.001	0.09~0.15
Social support→ Self-esteem	-0.21	0.08	13.48	〈.001	0.17~0.24
SSC →Suicide ideation	-0.32	0.06	-3.20	〈.001	-0.40~--0.10
Social support→Suicide ideation	-0.43	0.07	-4.38	〈.001	-0.47~--0.18
Self-esteem→Suicide ideation	-0.19	0.08	-2.33	.019	-0.36~-0.03

covariates: age, sex, depression, Living alone

*SSC= Subjective Social Class, β=coefficients, SE=standard Error, CI=confidential interval



**p〈0.001, covariate : age, living alone, depression

Fig. 1.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Social Class and Suicide Ideation

4. 논의

본 연구결과 낮은 주관적 사회계층은 자살생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은 이들의 관계에서 완충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년 성인에서 낮은 주관적 사회계층은 자살생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 같거나 유사하다[9-12].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대한 인식적 요소가 자살 생각의 격차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층구조가 견고해져, 청년층의 계층이동 가능성은 작아지고 가구(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계층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19]를 볼 때 중년성인에서 개인의 노력에 의한 계층이동 어려워짐에 대한 인식이 크고, 자신이 상대적 비교에서 하위의 계층에 소속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자살 생각을 하도록 하였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중년성인의 자살생각에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살생각과 관련 요인들의 관계를 단면분석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우울로 완전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11]와는 다른 결과이다. 기존 연구는 중년 여성이 많이 다니는 대학교에서 대상자를 임의표집 하여 분석한 결과[12]로 대표성 있는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결과는 대표성 있는 중년성인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우울을 보정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경로분석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확인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주관적 느낌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한 긍정으로, 이는 힘든 환경을 이겨내는 중요한 요소이다[21-22]. 특히 중년기는 본격적인 노화 과정에 진입하면서 신체적 쇠퇴와 정체감 위기, 노년 시기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면서 가족관계, 사회적 역할을 재평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23]. 따라서 중년성인이 그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압박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아존중감을 향상하게 시킬 수 있는 사회적·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자살생각을 줄이는데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주관적 사회계층에 부정적 영향을 받지만,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요소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자아존중감이 증가한다[21, 24]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사회정체성 이론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가정 중의 하나는 실제 자신이 속한 계층의 부정적 영향이 소

속감이나 결속력으로 약화할 수 있다는 완충 가정이다[6]. 본 연구에서도 낮은 사회적 계층에 속한다고 인지할지라도 높은 사회적 지지가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일수록 자살 생각이 낮아져, 이러한 완충 가정을 지지하였다.

중년성인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에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낮은 사회적 계층에 속한다고 인지하는 중년성인은 중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수준, 200만원 이하의 가구소득, 미혼/별거/이혼인 상태가 많았다는 점에서 거주지 또는 생활터에서의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사회적 지지를 위해서는 중년성인의 삶의 맥락 내에서 개별적인 접근을 통한 지지가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 기존 연구결과[12,13]와 같이 우울은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또한 우울과는 별개로 주관적 사회계층,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영향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자살행위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위험요인으로서의 우울의 중재뿐 아니라 더불어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과 같은 보호요인의 향상을 위한 중재가 병행되어야 함을 입증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면 조사연구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둘째, 중년성인에서는 주관적 사회계층의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가 현재 인지하는 주관적 사회계층의 영향이라고 확대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결과 주관적 사회계층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중년성인을 대상으로 생활터 기반의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중년성인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사회계층 구조가 견고해짐으로써 주관적 사회계층 간의 건강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낮은 사회적 계층에 속한다고 인지하는 중년성인에게 우선적인 중재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자살예방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 이미 강조된 우울과 같은 위험요인에 대한 중재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확장과 자아존중감향상과 같은 보호요인의 강화가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중년성인의 주관적 사회계층을 인식하는 요인 및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M. G. Marmo, M. J. Shipley & G. Rose. (1984). Inequalities in death - Specific ex planations of a general pattern? *The Lancet, 1(8384),* 1003-1006.

[2] S. Li, Q. Zhang & P. Muenning. (2018). Subjective assessment of income and social class on health and survival: an enigma. *SSM-Population Health, 6,* 295-300.

[3] N. E. Adle et al. (2000).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19,* 586-592. DOI : 10.1037//0278-6133.19.6.586

[4] V Bacak. (2017). Measuring inequalities in health from survey data using self-assessed social class. *Journal of Public Health, 40(1),* 183-190. DOI : 10.1093/pubmed/fdx036

[5] A. Baum, J. P. Garofalo & A. Yal. (1999). Socioeconomic status and chronic stres: Does stres acount for SES efects on health?. *A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30(1),* 129-141.

[6] Korea Suicide Prevention Center. (2019). *2018 Suicide Status Statistics.* Seoul: Korea Suicide Prevention Center. http://spckorea-stat.or.kr/boadpublishview.do

[7] E. Park. (2014). Suicide ideation and the related factors among Korean adults by gender.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Community Health, 39(3),* 161-175. DOI : 10.5393/JAMCH.2014.39.3.161

[8] E. Park. & S. J. Choi. (2013). Prevalence of suicidal ideation and related risk factors among Korean adul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2(2),* 88-96. DOI : 10.12934/jkpmhn.2013.22.2.88

[9] J. Hong & J. Yi. (2017). The relationship of subjective social status to mental health in South Korean Adults. *World Psychiatry, 16,* 106-107.

DOI : 10.1002/wps.20357

[10] S. E. Lee. (2017). Risk factors for suicidal ideation across the life cycle among Korean adults: Korean Pshycho-social anxiety survey.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9(2),* 109-118. DOI : 10.7475/kjan.2017.29.2.109

[11] H. J. Um & H. J. Jun. (2014). Predictive factors for mid-aged male and female adults suicidal ideation. *Mental Health & Social Work, 42(2),* 35-62.

[12] J. H. Son & M. S. Her. (2013).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between Self-esteem and Suicidal Ideation of Middle-aged Women in Daegu. *Korea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29(2),* 155-178.

[13] E. S. Epel et al.(2004). Accelerated telomere shortening in response to life stres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1,* 17312-17315.

[14] K. An, M. Kim, D. Kim & Y. Suh. (2012). Depression and its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stress in middle-aged men. *Korean J Clin Geri, 13(4),* 181-188.

[15] M Rubin & S Rebecca. (2018). Kill or cure? different types of social class identification amplify and buffer the relation between social class and mental health. *The Jouranl of Social Psychology, 158(2),* 236-251.

[16] K. An M. Kim, D. Kim, Y. Suh & D. Kim. (2012). Depression and its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stress in middle-aged men. *Korean Journal of Clinical Geriatrics, 13(4),* 181-188.

[17]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8] F. J. Kohout, L. F. Berkman, D. A. Evans & J. Cornoni-Huntley. (1993). Two shorter forms of the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depression symptoms index. *Journal of Aging Health, 5(2),* 179-93

[19] J. Takeshita et al.(2002). Are depressive symptoms a risk factor for mortality in elderly Japanese American men?: The Honolulu Asia Aging Study. *Am Journal of Psychiatry, 159,* 1127-1132.

[20] Y. Lee. (2018). Changes in influence factors on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and class mobility possibility of the youth.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8(4),* 465-491. DOI : 10.15709/hswr.2018.38.4.465

[21] S. A. Kim & S. Y. Kim. (2011). The impacts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mental health of the middle-aged wome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2,* 109-130.

[22] B. J. Jon. (1976). Self-esteem; a test of its mensurability.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11,* 107-130.

[23] W. K. Lee, H. S. Park & J. Y. Lee. (2019). The Effects of Life stress and Aging anxiety on the Mid-life Crisis: the Mediation Effect of Resilience.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35(2),* 99-122.

[24] Y. J. Oh & H. D. Kim. (2018). A study on *predictive factors of Elderly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Co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2),* 1-9.

고 영(Young Ko) [정회원]

· 1997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학사)
· 2003년 2월 :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석사)
· 2010년 2월 :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박사)
· 2011년 3월~2012년 8월 :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 2012년 9월 ~ 현재 : 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간호학, 노인보건
· E-Mail : youngko@gachon.ac.kr

김 지 연(Ji-Youn Kim) [정회원]

· 1998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학사)
· 2010년 8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석사)
· 2016년 8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경동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보건, 건강, 불평등, 간호
· E-Mail : iscraa08@kduniv.ac.kr